

백제문화유산 역사적 중요성 인식

문화재청,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주간 행사
익산·공주·부여에서 특별 프로그램 시행

문화재청에서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협력,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 왕도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 행사를 연다.
백제문화유산주간 행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면서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화 발전의 전성기를 이룬 백제 후기(475~660년)를 대표하는 유산들이 분포한 곳으로,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기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준 것을 확인하는 등 뛰어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계유산을 포함한 백제 후기 중요 유적 26개소를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선정하였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5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이 출범했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추진단의 출범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추진단이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나머지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첫째이니만큼 참여기관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9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도에는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백제 시간여행'을 주제로 가족들이 현장에서 백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우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8개 분야에서 26개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민이나 언론인들도 백제 문화유산을

을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특히 '백제 애니메이션 페스타'는 각 기관이 제작한 백제 관련 교육용 만화영상을 처음으로 한데 모아 상영하는 것으로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도 백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나 박물관이 백제 문화유산의 홍보와 활용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백제 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국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등과 관계기관이 함께 백제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역사성을 연계하여 알릴 수 있도록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익산시 등은 백제문화유산주간이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 왕도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맡아 지역 간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백제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 4개 사업 공모

내달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예산·홍보지원·사업지도 등

문화재청은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에 운영할 4개 분야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공모한다.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은 각 지역 소재 문화재에 체험·관람·교육·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과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 등 4개 분야다.
2019년에 시행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기획한 뒤, 시·도를 거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과 홍보 지원, 사업지도 등이 이뤄진다.
사업 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점검, 사업평가와 우수사업 포상 등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고,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각 지역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문화 수준 향상, 관광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008년 '생생문화재' 4개소로 시작한 이후 올해 전국 280개소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약 270여만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뉴시스



남원예촌 조각녀살풀이명무관에서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조각녀 살풀이 정기공연인 '내멋, 네멋'과 버스킹, 서커스, 관현악단 연주 등 풍성한 주말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남원예촌서 30일 오후 1시부터 조각녀 살풀이 정기공연

살풀이부터 서커스 저글링·관현악단 연주 등 프로그램 다채

남원예촌 조각녀살풀이명무관에서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조각녀 살풀이 정기공연인 '내멋, 네멋'과 버스킹, 서커스, 관현악단 연주 등 풍성한 주말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살풀이 정기공연은 지난 3월 31일 조각녀살풀이명무관의 개관식을 시작으로 우리 전통춤의 맛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에는 조각녀전통춤보존회 회장이자,故조각녀의 딸인 정명희 회장이故조각녀 전통춤의 맥을 잇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서커스리운의 서커스저글링과 센세이션 브라스의 관현악 공

연도 이 날 함께 펼쳐지며,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아트버스킹'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남원예촌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국악버스킹과 불거리 많은 플라멩코, 저포놀이와 길썸을 체험하는 전통놀이도 진행되며, 이야기할머니와 함께하는 황화이야기, 우리가족 행복 가르침 가훈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즐거운 주말을 책임질 것이다. 우천시에도 남원예촌 사랑마루로 장소를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난 22~23일 국제요리학회 정정희 원장의 강의로 '조선의 음식을 만나다-골동반 이야기'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시루방에서 진행됐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조선의 음식을 만나다'... 첫 교육생 배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옛 음식을 고찰하고 전통 식문화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기 위해 마련한 '조선의 음식을 만나다-골동반(骨董飯)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첫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을 주제로 비빔밥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진 고 조리서 시의전서 '골동반'에 대해 고찰하고 재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앞서 교육은 지난 22~23일 국제요리학회 정정희 원장의 강의로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시루방에서 진행됐다.
특히 ▲조선 시대의 식문화 ▲시의전서(是議全書) 속 골동반과 현재의 비빔밥 ▲골동반 재현(조리실습) 등 이론은 물론 실습까지 병행해 교육생들에게 잊혀진 우리 옛 음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전당은 '조선의 음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교육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올해 하반기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직무대리는 "과거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골동반 이야기를 기점으로 선조들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